

중앙대논술

인문사회계

목차

2026학년도 인문사회계열 (2교시)	3
문제 1	3
문제 2	11
문제 3	14
202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2교시)	17
문제 1	17
문제 2	25
문제 3	28
2024학년도 인문사회계열 (2교시)	31
문제 1	31
문제 2	39
문제 3	42

2026학년도 인문사회계열 (2교시)

문제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계고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가족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헐어 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다. 우리의 밥상에 우리 선조들 대부터 묶어 흘러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와 발은기침 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 떨어졌을 것이다.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송충이를 다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어머니가 싸 놓은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종이와 볼펜을 든 사나이가 서 있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부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달라붙어 집을 쳐부수었다. 지섭이 사나이를 향해 걸어갔다.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섭이 물었다. 사나이는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가 말했다.

“삼십 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죠? 시한이 지났어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나이가 돌아서려고 했다.

지섭이 재빨리 말했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천 년도 더 될 수 있지만, 선생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렸습니다. 오 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

“그만 비켜요.”

“당신이 텃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백여 세대 이상이 여기서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어요? 텃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구.”

설마 하고 서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안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상체를 수그렸다. 우리가 말할 사이도 없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뒤늦게 물러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일은 간단히 끝났다. 지섭은 땅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다.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지섭을 끌고 갔다.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

* 계고장(戒告狀):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나]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가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예외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와 브로드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집에서 나온 세균이 정

화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가의 상수도에 유입되었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무모한 듯 보였던 존 스노의 연구는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설명하여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만약 존 스노가 오염된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기존의 지배적 통념에 간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을지 모를 일이다.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밝힌 존 스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의 도약은 대개 이단적 발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에 발전과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충고이다.

[다]

처음부터 고모는 여자를 믿지 못했다. 그런 고모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는 자주 고모한테 말했다. 우리 식구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 시집왔어요. 나 아저씨 좋아요. 여자는 한국말을 꽤 빨리 배웠다. 말 끝을 추켜올리는 이상한 억양도 많이 누그러졌고, 피부도 한결 하얘졌다. 그럴수록 고모는 여자를 더 경계했다.

여자가 시집온 지 2년쯤 지났을 때다. 아버지는 저녁이면 여자를 앉혀 놓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찾아낸 것처럼 아버지는 그 일에 열중했다. 저녁에 학원에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면 아버지와 여자가 머리를 맞댄 채 쿡쿡거리며 웃기도 했고, 한글 카드로 알아맞히기 게임이나 받아쓰기를 하기도 했다. 어떨 땐 태국 쌀국수를 끓여 밤참으로 먹었다. 젊은 배우들이 출연해 사랑을 키워 가는 드라마를 가까이 붙어 앉아 보기도 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종일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여자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키워 가는 듯 보였다.

[중간 부분 줄거리] 외국에서 온 동네의 색시들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여자 또한 그럴까 봐 의심한다. 여자는 자신을 의심하는 고모에게 자신은 남편을 사랑하기에 도망가지 않을 거라 말한다. 몇 달 뒤, ‘나’는 읍내 기차역 근처에서 여자가 동남아시아 사내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휴대 전화로 찍는다.

역 앞에서 여자가 낯선 사내와 만나는 사진을 나는 아버지와 고모에게 보여 주었다. 고모는 펄쩍펄쩍 뛰었다. 여자를 보자마자 앞섶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채 마당에 머리를 짓궂기까지 했다. 참 다못한 여자가 고모 손목을 비틀어 등 뒤로 꺾어 넘어뜨렸다. 어려서부터 야자 농장에서 일한 여자의 팔 힘은 예상보다 셌다. 나 이 집 식구야. 나 팔려 온 거 아니고, 시집온 거 맞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들 다 미쳤어. 나 길거리에서 고향 사람 만났어. 그게 죄야? 그거 우리나라에선 죄 아냐. 당신들 나라 이상해. 여자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고모와 나는 여자의 서슬에 놀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영원히 입을 다물었다. 우리가 법석을 떠는 동안 아버지가 흥분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걸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내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자와 나의 인연은 낡은 실밥처럼 약해졌다.

[라]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 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소여물도 못 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를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궐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궐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민 씨는 이장이 궐기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넰 것들을 기억해 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궐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 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술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이고 온 사람도 밋 없더마. 소리마 밋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패이맨구로 썩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마]

[앞부분 줄거리] 여수에서 국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좌익 반군들은 순천까지 세력을 확대한다. 곧 벌교 지역 좌익 세력들까지 반군에 합세하여 벌교를 장악한다. 아들 김범우가 피신해 있는 동안, 지주인 아버지 김사용은 인민재판에 불려 나간다. 김사용 집안에서 일하는 문 서방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한다.

“작은서방님, 작은서방님, 어르신네가, 어르신네가 살아나셨구만요, 살아나셨다니께요.”

문 서방이 사립문을 차고 들며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문 서방!”

“궁께, 어르신 차례가 되얏는디, 위메 참말로 환장허졌등거. 어르신네는 두 눈 딱 감고 단상에 꼳꼳하게 스셨는디, 누가 벌떡 일어남스로 소리 질르기를, 김사용은 지주지만 인민의 적은 아니다. 큰아들 범준은 독립투사고 김사용은 독립 자금을 댔다. 인민의 피를 제대로 쓴 것이다. 고것만이 아니라 큰아들 김범준은 해방되고 3년이 지난 지금꺼정 소식이 읏다. 못헐 말로 죽은 것이라면 조국 독립을 위해 하나뿐인 목심을 바친 것이다. 그라고 지주 김사용은 작인*들헌테 질로 후허게 헐 사람이다. 고건 시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렇께 김사용은 숙청에서 빼야 헐다, 고 허드랑께요. 그 말을 위원장이 접수헐다고 발표허고는 또 모인 사람들헌테 위뎡게 헐랑가 문드만요. 위메, 고때 사람 미치겼등거. 근디 여그저그서 웁소, 웁소, 허는 소리가 터짐스로 박수를 안 치겼소. 그러서 어르신이 화를 면허시고 단상을 내려오시는디……. 올매나 죄시럽고 눈물이 나든지…….”

문 서방은 목이 잠기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 문 서방의 그지없이 착하고 선량함이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고맙소, 문 서방.”

김범우는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다.

“무신 당췌는 말썬이시다요. 정작 고마운 사람은 따로 있제라. 헐디 말이요, 서방님. 인민재판이라등가 먼가가 끝나고 꺾이는 굿판이 벌여졌는디, 위메 징허기도 허고…….”

“어디서 말인가요?”

김범우는 한결 느긋해진 태도로 말하고 있는 문 서방에게 눈길을 돌렸다.

“위디긴 위디어라, 북국민학교 마당에서 인민재판을 끝내고 그 질로 소화다리로 끌고 갔구만이라. 사람덜이 벌 때맹키로 모였는디, 사람덜헌테 귀경시키대끼 줄줄이 세워 놓고 꺾었당께요.”

“문 서방도 그걸 구경했단 말시오?”

“하먼이라, 징허기는 헛어도 그건 돈 내고도 못헛 존 귀경거리였는디요.”

“그게 무슨 소리요, 문 서방. 남들은 죽어 가는데 그걸 보고 좋은 구경거리라니.”

김범우의 음성은 뜨거웠고 눈 가장자리에는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존 귀경거리고말고라. 죄는 진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고, 즈그눔덜이 고약허게 해 감서 배 터지게 묵고 살았응께 그렇게 당허서 싸제라. 고것들이 하나씩 죽어 자빠지는데, 씨영쿠* 잘됐다. 씨영쿠 잘되었다, 허는 소리가 속에서 절로 솟기드만요. 고런 맘이 위디 나 혼자뿐이었을랍디여. 말을 안 헛응께 그렇게 귀경허는 전부가 다 똑같은 맘이었을 꺼구만이라.”

문 서방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있었다. 그의 눈은 증오로 타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범우는 하나의 악마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던 아까의 그 착하고 선량하던 모습은 간 곳이 없었다. 김범우는 섬뜩하게 끼쳐 오는 두려움을 느꼈다.

* 작인(作人): 소작인.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

* 씨영쿠: ‘시원하게’의 방언.

[바]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가운데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이론이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다. 즉,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디 식물에만 해당하는 법칙이겠는가? 동물의 성장, 인간의 성장과 발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의 역량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태계의 삶과 지속 가능성에도 리비히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 존재에 달려 있다.

도시도 생태계다.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상위 포식자들만 먹고살아서는 안 된다.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도 먹고살아야 한다. 도시에 비싼 집, 새 집, 큰 집만 있다면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싼 집, 헌 집, 그리고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도 들어가 살 집이 있고, 젊은 사업가들이 창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제인 제이컵스가 강조한 도시의 생명력과 다양성은 이른바 우리가 사는 도시도 생태계와 같으니, 물건 다루듯 하지 말고 도시 생태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낡은 집이나 오래된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잘 살려서 오래 쓰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사]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샛노란 꽃 두 송이가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에 몹시 생동스러워 보였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 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해만 뜨면 다시 활짝 핀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곧 안 깨어나고 져 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 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보여 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신기해하는 이가 별로 없다.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백 가지냐고 기막힌 듯이 물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내가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한 것은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나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효이다.

곧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

다. 이렇게 그것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는지라 백 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 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 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백 식구는 대식구이다.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 기화요초(琪花瑤草): 옥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아]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은 어떤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해 유전자 일부를 변형시켜 만든 생물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대부분 식물이기 때문에 GMO라고 하면 통상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리킨다. 미국 식품 및 농업 정책 연구소가 발표한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미국에서만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GMO 작물 재배로 4백만 톤의 증산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14억 달러의 원가가 절감되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도 3만 톤이나 줄여 전체적인 경제 효과가 2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또 다국적 농업 회사인 B사에서는 병충해에 강한 목화 종자를 개발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이 목화 종자를 경작하면서 농약 사용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GMO 업계는 GMO 기술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명분과 연결한다. 갈수록 부족해지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 인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유전자 변형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C사의 GMO 콩 종자는 일반 종자의 두 배 가까운 값을 치러야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제초제와 함께 묶음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른 제초제를 사용하면 잡초와 함께 콩도 죽기 때문이다. 특정 제초제를 계속 사용하면 내성이 생긴 잡초가 생기기도 한다. GMO 콩을 재배하여 수확량이 늘기는 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생산비를 벌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풍부한 수확을 보장하는 GMO 종자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선전과 달리, GMO 종자는 더욱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세계 환경 단체들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유전자 변형 종자에 대한 내성 증가로 자연 생태계가 교란 및 파괴될 수 있는 만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재앙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GMO 업계가 내세우고 있는 지속 가능성을 일축한다.

[자]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여러 가지 기회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기회를 포기했다는 말과 같다. 이때 선택의 대가, 즉 선택의 비용은 그 선택으로 포기한 기회의 가치이며,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했을 때의 비용을 생각해 보자. 대학 진학 선택의 비용으로 우리는 대학 등록금, 책값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비용 중 명시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할 때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돈을 뜻한다.

그러나 명시적 비용만이 기회비용의 전부는 아니다. 대학 진학을 선택함으로써 그 시간 동안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해야 한다. 직접 돈이 들지는 않지만 선택을 위해 포기한 잠재적 이득 역시 기회비용의 일부이다. 이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암묵적 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의미한다.

[차]

1855년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지금의 미국 워싱턴주 수쿠아미 지역에 살던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대표단을 보내 땅을 팔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시애틀 추장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순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이다.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의 땀과 인간의 땀은 모두 하나이다. 모두가 같

은 부족, 우리의 부족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이 삶의 거미줄을 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역시 한 올의 거미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가 거미줄에 가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사람이 땅을 파헤치는 것은 곧 그들 자신의 삶도 파헤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 대지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 오히려 대지에게 속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저항을 하는 개인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개인이 저항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가)~(라)에는 저항을 하는 상황과 개인이 나타난다. (가)에서 지섭은 공권력의 일방적 철거 집행이 평범한 사람들의 오랜 삶의 터전을 짓밟는 행위임을 비판하며 격렬히 저항한다. 그 결과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무력하게 저지당한다. (나)에서 존 스노는 콜레라가 공기로 전염된다는 통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저항한다. 그 결과 직접 조사와 관찰을 통해 물이 전염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콜레라 예방과 의학 연구 방법 발전에 공헌한다. (다)에서 여자는 편견에 젖은 가족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차별적 시선에 항의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저항한다. 그 결과 아버지와 여자가 이룬 부부의 행복이 파괴되고 가족은 해체된다. (라)에서 민 씨는 황만근의 존재를 무시하고 마을 대표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이장에게 환멸을 느껴 저항한다. 그 결과 이장의 사실 은폐와 위선이 밝혀지고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실종에 이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각 인물들은 강압적 공권력, 잘못된 통념, 부당한 편견, 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저항을 하고, 무력 진압, 의학 발전, 가족 해체, 진실 규명 등의 결과를 얻는다. (569자)

■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개인이 저항을 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32점)
- (가) 이유: 공권력의 일방적 철거 집행이 평범한 사람들의 오랜 삶의 터전을 짓밟는 행위임을 비판함 (4점)
결과: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무력하게 저지당하고 끌려감 (4점)
- (나) 이유: 콜레라가 공기로 전염된다는 통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4점)
결과: 직접 조사와 관찰을 통해 물이 전염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콜레라 예방과 의학 연구 방법 발전에 공헌함 (4점)
- (다) 이유: 편견에 젖은 가족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차별적 시선에 항의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 (4점)
결과: 아버지와 여자가 이룬 부부의 행복이 파괴되고 가족은 해체됨 (4점)
- (라) 이유: 황만근의 존재를 무시하고 마을 대표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이장에게 환멸을 느낌 (4점)
결과: 이장의 사실 은폐와 위선이 밝혀지고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실종에 이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4점)
-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개인이 저항을 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 (1)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 (2)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가)~(라)에는 저항을 하는 상황과 개인이 나타난다.
결론: 이처럼 각 인물들은 강압적 공권력, 잘못된 통념, 부당한 편견, 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저항을 하고, 무력 진압, 의학 발전, 가족 해체, 진실 규명 등의 결과를 얻는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개인이 저항을 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 (3점)과 서론, 본론, 결론 제시 (3점) 및 저항한 이유와 결과의 논리적, 요약적 구조화 (2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참신성도 고려)	1~3점
		이유와 결과가 논리적, 요약적으로 구조화되었는가 여부	1~2점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타인의 곤경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중심으로, 제시문 (라)의 ‘민 씨’와 제시문 (마)의 ‘문 서방’의 차이점을 쓰고, 제시문 (라)의 ‘이장’과 제시문 (마)의 ‘문 서방’의 유사점을 쓴 뒤, 제시문 (라)의 ‘이장’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제시문 (바)와 (사)에서 각각 찾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라)의 민 씨는 모두에게 똑같은 방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황만근만 경운기를 타고 갔던 상황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이장의 변명에 적극적으로 항변한다. 한편 (마)의 문 서방은 자신과 친한 정도에 따라 인민재판 결과의 정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만, 김사용의 위기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의 이장은 본래 멸시하던 황만근이 귀가하지 않은 이유가 술 때문이라 단정하고 그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다. (마)의 문 서방은 지주들이 평소 작인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죽음에 기뻐한다. 이장과 문 서방은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타인에 대한 이해나 연민이 없으며 그들의 생명에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바)에 따르면, 식물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간과되기 쉬운 사소한 것들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장은 황만근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사)에서 ‘나’는 남들의 눈에 하찮게 보이는 꽃들도 세심하게 관찰하며 애정을 쏟는다. 그러므로 이장은 황만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560자)

■ 채점 기준

[문제 2]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라)의 ‘민 씨’와 제시문 (마)의 ‘문 서방’의 차이점을 썼는지 평가한다. (15점)
 - (1) 제시문 (라)에서 민 씨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황을 인식했다는 점을 찾아내고, 이장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했다는 것을 서술한 경우 (8점)
 - (2) 제시문 (마)에서 문 서방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타인을 평가했다는 점을 찾아내고, 김사용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서술한 경우 (7점)
- 2) 제시문 (라)의 ‘이장’과 제시문 (마)의 ‘문 서방’의 유사점을 썼는지 평가한다. (15점)
 - (1) 제시문 (라)에서 이장이 평소 무시했던 황만근이 귀가하지 않은 이유를 술에 취했기 때문이라 단정한 사실을 찾아내고, 황만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은 것을 서술한 경우 (5점)
 - (2) 제시문 (마)에서 문 서방이 지주들에게 반감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이들의 죽음에 기뻐했다는 것을 서술한 경우 (5점)
 - (3) 이장과 문 서방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타인을 평가하며, 이해와 연민이 없이 타인의 생명에 무관심했다는 유사점을 서술한 경우 (5점)
- 3) 제시문 (라)의 ‘이장’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에서 찾아 서술했는지 평가한다. (10점)
 - (1) 제시문 (바)에서 도시나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소한 요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 이장의 태도에 적용하여 서술한 경우 (5점)
 - (2) 제시문 (사)에서 하찮게 보이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찾아 서술한 경우 (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 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라)의 민 씨와 (마) 의 문 서방의 차이점을 썼는지 평가 (15점)	(라)에서 민 씨에게 일관된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적극 적으로 항변했다는 것을 씀	8점
		(마)에서 문 서방이 재판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을 찾아 씀	7점
	② (라)의 이장과 (마) 의 문 서방의 유사점을 썼는지 평가(15점)	(라)에서 이장의 특징을 찾아 씀	5점
		(마)에서 문 서방의 특징을 찾아 씀	5점
		이장과 문 서방의 유사점 찾아 정리함	5점
	③ (라)의 이장이 갖추 어야 할 자세를 (바)와 (사)에서 찾아 썼는지 평가(10점)	(바)에서 특징을 찾아 이장의 자세에 적용함	5점
		(사)에서 특징을 찾아 이장의 자세에 적용함	5점

문제 3

※ 제시문은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3] 제시문 (아)에 나타난 ‘GMO 업계’의 입장을 제시문 (자)를 활용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사)와 (차)를 토대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 GMO 업계가 고려해야 할 점을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 예시 답안

(아)의 GMO 업계는 GMO를 선택하면 생산 원가가 절감되고 농약 사용이 줄어 명시적 비용이 적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에 의하면, GMO는 비싼 종자, 특수 제초제 사용, 잡초의 내성 증가로 인한 지출이 추가돼 명시적 비용이 커지며, 미래 세대 안전성과 생태계 보호라는 가치를 포기하는 암묵적 비용을 수반하므로 전체 기회비용은 오히려 높을 수 있다. (사)에 따르면 수많은 꽃이 피고 지는 일도 자연적으로 정해진 질서가 있다. (차)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은 서로의 일부로서,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인간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GMO 업계는 자연의 속도와 섭리,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50자)

■ 채점 기준

[문제 3] 20점 만점 (배점 2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 1) 제시문 (아)에 나타난 GMO 업계의 주장을 제시문 (자)에 설명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2점)
 - (1) GMO 업계에 따르면, GMO는 작물의 생산 원가를 낮추고 농약 투입 규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명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공헌할 수 있으나, 높은 종자 가격, 특수한 제초제 구매 강요, 잡초 내성 증가로 인한 제초제 추가 사용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추가돼 전체적으로 명시적 비용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기술한 경우. (8점)
 - (2) 환경 단체에 따르면, GMO는 미래 세대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생태계 보호라는 가치를 희생시키는 암묵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쳐 전체적으로 오히려 기회비용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 기술한 경우. (4점)
- 2) 제시문 (아)의 GMO 업계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자세를 제시문 (사)의 자연 존중, 제시문 (차)의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에서 각각 찾아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8점)
 - (1) 집 마당에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각자 정해진 시기에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고 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순서를 기다리며 자연의 섭리와 속도를 존중하는 자세를 이해하고 기술한 경우. (4점)
 - (2) 생태주의 자연관에 따라 인간과 자연은 서로의 일부이며, 상호 연결되어 있어 생태계에 일어나는 일은 인간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여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을 존중하는 자세를 찾아 기술한 경우. (4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 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의 GMO 업계 의 주장을 제시문 (자) 에 설명된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는 개념을 토 대로 명확하게 서술 (12점)	(아)에 나타난 GMO 업계 논리를 (자)의 명시적 비용 개념으로 설명하여, 원가 절감과 농약 사용 감소로 명시적 비용이 낮다는 논지를 제시	2-4점
		(아)에 나타난 GMO의 부작용인 비싼 종자 값, 특수 제초제 사용 과 자연의 내성 증가를 추가적인 명시적 비용으로 파악하여 논지 를 제시	2-4점
		非 GMO 작물이 미래 세대와 생태계에 안정성을 가지는 데 반 해, GMO는 이를 포기하는 암묵적 비용을 수반하므로, GMO의 전체 기회비용이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는 논지를 제시	2-4점
	② ‘지속 가능성’을 위 해 (아)의 GMO 업계 가 고려해야 할 자세로 서 (사)와 (차)에서 자 연의 질서, 생태계 존 중을 각각 찾아 명확히 서술 (8점)	(사)에서 수많은 꽃이 각자 자연이 정한 순서대로 차례로 피고 지는 모습을 자연의 섭리와 규칙으로 파악한 논지를 제시	2-4점
		(차)에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의 일부이며 긴밀히 연결되어 영향 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이 중요하다는 논지를 제시	2-4점

202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2교시)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땅 투기로 졸부가 된 최 사장이 마을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든 후 이장 익삼을 통해 알게 된 동네 건달 임종술에게 저수지 감시원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한다.

“사람이 운수 불길해서 잠시 잠깐 이런 촌구석에 처백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보들 마시오! 에이 여보 쇼들,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가! 내가 게우 오만 원짜리 폰수배끼 안 되는 것 같소? 나 임종술이, 이래 봐야도 왕년에는 사장님 소리까장 들어 본 사람ियो!”

“내가 자네라면은 나는 기왕 낚시질하는 집에 비단잉어에다 월급 봉투를 한목에 같이 낚여 올리겠네. 그 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 차고 물 가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완장요!” 완장이란다! 왼쪽 팔에다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다!

고단했던 생애를 통하여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 온 술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의 뇌리를 스쳤다.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였다.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였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술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 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아들한테서 저수지의 감시원으로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육순이 내일모레인 운암댁은 삼 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듯한 상쾌함을 맛보았다. 월급 오만 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다.

“허는 일도 별로 없구만요. 그저 감시원 완장이나 차고 슬슬 바람 쐬기 겸 대봇독이나…….”

어머니가 느끼는 기쁨이 여간만 큰 것이 아닌 줄 익히 아는지라 종술은 그 기쁨을 더욱 배가할 요량으로 대수롭지 않은 척 무심히 지껄임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그러나 운암댁의 귀에는 그 말이 결코 무심하게 들리지가 않았다.

“뭇이여야? 완장이여?” 너무도 놀란 나머지 운암댁은 눈앞이 다 캄캄해 왔다.

“너 그것 안 돌르고 감시원 헐 수는 없겠냐?”

당치도 않은 말쑤이였다.

“에이 참! 엄니는 동네서 사람대접 조깨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여영 못마땅허요?”

“돌아가신 낭반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완장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도 다아 지 핏줄 탓인갑다.”

“그 완장허고 이 완장은 엄연히 승질부터가 달르단 말이요!”

찾김에 종술은 그에 또 몽니*를 부리고 말았다.

*몽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

[나]

[앞부분 줄거리]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는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 떼가 몰려온다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마을에 알린다. 어느 날 파수꾼 ‘다’는 처음부터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운반인을 통해 촌장에게 보낸다.

촌장 이것, 내가 보낸 거니?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마을은 늘 안전했어.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다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내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리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촌장 애,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다 …… 네?

촌장 마을엔 오지 마라.

다 (침묵)

촌장 그럼, 잘 있거라.

[다]

[앞부분 줄거리] ○○시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권 씨는 무리하게 거금 이십만 원을 마련하여 철거민의 입주 권리를 손에 넣는다. 그러나 입주는커녕 직장과 재산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감옥살이까지 한 권 씨는 ‘나’의 집 문간방에서 셋방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남편이 여전히 벌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진통이 너무 길고 악착스러운 데 겁이 났던지 권 씨는 통금이 해제되기도 전에 부인을 업고 비탈길을 내려가느라고 한바탕 복새를 떨었다. 복이 복채 위에 업힌 모양으로 권 씨 내외가 우리 집 문간방을 빠져나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한근심 더는 기분이었다. 미역 근이나 사 놓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오면 병원에 가 보라고 아내에게 이르고는 출근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위에게 연락을 받아 공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십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어나 모두 위험하대요.” (중략)

그것뿐이었다.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

다. 산모통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힌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빗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른다.

산부인과에서는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닦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십만 원을 건네자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지시했다.

요란한 수술치곤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네 댕가 다섯 댕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추예요, 고추!”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싸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ভাল 생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엑세디션엔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 갔다.

[라]

상우는 강당을 빌리기 위해 직접 ○○구청을 찾아가 ○○구 공무원과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상우 안녕하세요. 나라 고등학교 일 학년 박상우입니다. 저희 사진 동아리에서 ‘아름다운 웃음’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공무원 학생 동아리라면 학교에서도 전시회를 열 수 있을 텐데 굳이 구청 강당을 전시회 장소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우 이번 전시회는 우리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전시회 장소로 학교보다는 구청 강당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우리 구에서는 강당을 주민 공동체 활동 장소로 빌려드립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강당을 빌려드리지 않아요. 따라서 먼저 사진 전시회가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강당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우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등학생인 저희가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할 거예요.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자는 의미도 있지요.

공무원 그것만으로는 전시회의 공공성이 좀 약합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좀 더 내세울 것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상우 네, 있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학교 사진 동아리 누리집에 올리면 한 장당 일정 금액이 모금됩니다. 그렇게 모금된 돈은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이 정도면 전시회의 공공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사진 전시회를 우리 구의 사업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상우 네, 정말 잘 되었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당을 빌릴 수 있나요?

공무원 아, 그건 곤란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만 강당을 사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또한 한 개인 및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상우 그렇군요. 저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해서, 평일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3시간씩 강당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시를 하기에 2일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공무원 그렇다면 다음다음 주에 전시회를 하시지요. 그때는 강당을 사용하는 행사가 없거든요. 학생들이 강당을 빌려 쓰는 시간이 짧기도 하니, 3일간 쓸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상우 전시회 날짜를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줄면 관람객이 적어질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아쉬운 일입니다. 전시회를 여는 3일 동안 최대한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싶은데, 학생들이 저희로서는 지역 주민에게 전시회를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요.

공무원 저희도 바쁘기는 하지만, 전시회의 성격이 좋고 공공성도 충분하니까 홍보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해도 좋겠네요. 제안하신 전시

회는 우리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상우 저도 동아리 사진 전시회를 열 공간이 마련되어 기쁩니다. 구에서 홍보를 도와주신다면 성공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마]

[앞부분 줄거리] 아파트 2층에 사는 회사원 ‘공’은 승강기를 이용하지도 않는데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관리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한다. ‘공’은 교체 비용 부담이 부당함을 이야기하지만, 관리소장은 승강기 교체 비용 납기일이 다가오고 있고,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하며 ‘공’의 의견을 묵살한다.

“내일이 마감이라서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관리소장이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자 공의 얼굴이 뼈뺨해졌다. 사방을 막아선 벽이 점점 조여오는 듯했다.

“승강기가 아니라 승강기입니다.”

꿈쩍도 않는 벽에 대고 주먹질하듯 공이 버럭 소리쳤다.

관리소장이 놀란 표정으로 공을 쳐다보았다. 공은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 관리소장에게 들이밀었다. 관리소장은 입을 꼭 다문 채 눈만 뒤룩거렸다*.

“승강기를 안 쓴다는 증거 있습니까?”

공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커진 한쪽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더 커졌다. 관리소장의 먹살을 잡지 않기 위해 공은 젓 먹던 힘까지 쥐어짜야 했다. 공은 코를 실룩거리며 관리소장을 노려보았다. 관리소장은 눈만 뒤룩거릴 뿐이었다. 아직 불일이 남았느냐는 태도였다. 뼈뺨해진 공의 얼굴이 파랗게 달아올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 하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래 봤자 소용없을 게 뻔했다. 눈앞에 버티고 있는 벽을, 억지를 부리는 벽을 부숴 버리고 싶었다.

“증거를 대면 될 거 아닙니까?”

관리비 고지서를 낚아챈 공은 관리 사무소를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사용하지 않는 증거를 대라고?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공은 순식간에 문서를 작성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공을 본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글을 적고 서명 받을 표를 덧붙였다. 출력한 문서를 들고 집을 나서는 공의 심장은 뼈뺨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중략)

사달이 난 것은 12층에서였다. 1203호 여자는 공이 설명하는 내내 팔짱을 풀지 않더니 공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뜸 소리쳤다.

“아저씨, 아파트 시세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아파트 시세랑 무슨 상관입니까?”

공이 항변했지만 1203호 여자는 눈도 깜짝 안 했다.

“막말로 낡은 엘리베이터 때문에 사고 나서 누가 죽기라도 하면 그쪽에서 책임질 거냐고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엘리베이터를 바꾸지 말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서명 받으러 다니는 그쪽이야말로 지나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쓰지도 않는데 교체비를 무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뭐요?” 공이 목청을 높였다.

*뒤룩거리다: 크고 둥그런 눈알이 힘 있게 자꾸 움직이다.

[바]

복잡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이 곧 가동된다. 이에 앞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폐장 운영의 원칙을 ‘안전’과 ‘신뢰’로 정한 후 시운전 현장을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정보 공개에 나서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시운전 기간 중 공개 관람을 실시해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방사성 폐기물 관련 기술을 쉽게 설명하는 것은 신뢰 구축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에 ‘소통의 날’을 지정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방폐장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누리집에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 감시 기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폐장 운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

해당 지역은 특색 있는 세입자들이 모여들면서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다. 이 지역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에 상권의 활성화에 공헌했던 세입자들이 지역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청 책임자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 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례에 들어갈 ‘임대료 안정화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물주 대표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구역 운영’이라는 대원칙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건물주분들이 법에서 지정한 범위를 넘어서 임대료의 인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산에 대한 운영과 처분의 권리는 상 위법에서 정한 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입자 대표 건물주 대표님의 말씀도 이해하지만,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이른바 ‘뜨는 지역’이 된 것은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패션, 문화의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주요 상점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구청 책임자 ‘임대료 안정화 협약’의 주요 내용이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건물주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도 협약에 참여해 주신 건물주분들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세금 면제 혜택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건물주 대표 협약에 참여한 건물주분들에게 어떠한 손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더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책임자 그 부분은 앞으로 차차 조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참할 의향이 있는 건물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도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건물주 대표 구청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한다면, 이 협약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가능한 한 많은 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세입자 대표 저도 ‘임대료 안정화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세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구청의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저희 입장을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서울과 경기 지역, 50여 개의 지하철 출입구에는 빨간 조끼를 입고 잡지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10개국에서 발간되고 있는 잡지 『빅이슈』의 한국판 판매원들이다. 빅이슈코리아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재능 기부로 만든 잡지를 노숙인들이 직접 팔게 하면서 자활을 돕는다. 빅이슈코리아의 판매원들은 이 잡지를 2,500원에 사서 5,000원에 판매하는데, 2주간 성실하게 일하면 회사에서 1차로 고시원비를 한 달간 지원하여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이후 6개월간 꾸준히 일하면서 1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모으면 임대 주택까지 지원해 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빅이슈코리아에서 일했던 판매원은 약 400여 명으로 그중 41명이 임대 주택을 얻었고, 15명은 재취업에 성공하여 자립하였다.

[자]

짐 허버드는 미국의 한 통신사 사진 기자로 일했다. 그는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근처의 노숙인들을 주제로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날 그가 방문한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인의 아들이 찍은 사진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바로 이 지역 아이들에게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와 소도구들을 들고 매주 노숙인 시설에 가서 카메라 다루는 법과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노숙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60%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마약과 폭력에 빠져 있었다. 이 아이들이 사진을 통해 자기를 찾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슈팅

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1990년 9월, 1년 반 만에 아이들의 사진을 모아 첫 전시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53명 아이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차]

볶음밥은 자유롭다. 딱 정해진 조리법도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 혹은 같이 먹을 사람이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것을 뺄 수도 있다. 재료의 조합은 무궁무진하기에 볶음밥은 요리하는 사람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볶음밥을 발견하기도 한다. 밥과 불고기가 만나면 평범한 불고기볶음밥이지만, 불고기볶음밥에 셀러리를 썰어 넣으면 갑자기 평범한 불고기볶음밥이 마법에서 풀려난 왕자님처럼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제법 어울리는 재료라 생각했는데, 막상 요리해 보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실패에서 배우면 된다. 여러분은 실패를 통해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가 서로 어울릴지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만의 궁극의 볶음밥 요리법을 완성하면, 여러분은 성인의 세계로 하산해도 된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부탁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가)~(라)에는 부탁을 수락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가)에서 감시원직을 수락한 이유는 완장을 찬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으로 생긴 한과 완장이 상징하는 권력에 대한 선망 때문이다. 그 결과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과거의 기억으로 인한 어머니의 우려 때문에 의견 대립이 생긴다. (나)에서 ‘다’가 촌장의 부탁을 수락한 이유는 자신의 확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과 촌장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 결과 ‘다’는 촌장에게 배신당해 격리되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잃는다. (다)에서 권씨의 부탁을 수락한 이유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권씨에 대한 연민과 전세금도 빚이라는 부채감 때문이다. 그 결과 보호자가 된 듯한 보람과 생명 탄생의 감동을 느낀다. (라)에서 강당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수락한 이유는 학생들의 행사가 공공성이라는 운영원칙에 부합하고, 일정이 협의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구청이 주민 행사를 돕는다고 홍보할 기회를 얻는다. 이처럼 등장인물들은 권력, 믿음, 연민과 부채감, 공공성 등을 이유로 부탁을 수락하고, 의견 대립, 기회 상실, 보람과 감동, 기회 획득 등의 결과를 얻는다. (567자)

■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32점)
(가) 이유: 완장을 찬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의 기억과 완장이 상징하는 권력에 대한 선망이 있음 (4점)
결과: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버지에게 대한 기억으로 인한 우려 때문에 어머니와의 의견 대립이 생긴다 (4점)
(나) 이유: 자신의 확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과 촌장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음 (4점)
결과: 촌장에게 배신당해 격리되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잃게 됨 (4점)
(다) 이유: 절박한 상황에 처한 권씨에 대한 연민과 전세금도 빚이라는 부채감이 있음 (4점)
결과: 보호자가 된 듯한 보람과 생명 탄생의 감동을 느낌 (4점)
(라) 이유: 학생들의 행사가 공공성이라는 운영원칙에 부합하고, 일정이 협의되었음 (4점)
결과: 구청이 주민 행사를 돕는다고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됨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1)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2)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가)~(라)에는 부탁을 수락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결론: 이처럼 등장인물들은 권력, 믿음, 연민과 부채감, 공공성 등을 이유로 부탁을 수락하고, 의견 대립, 기회 상실, 보람과 감동, 기회 획득 등의 결과를 얻는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부탁을 수락한 이유와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 (3점) 및 결론 제시 (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관리소장’의 태도를 비판하고, 제시문 (마)의 ‘공’이 느끼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소장’의 역할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라)에서 두 인물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양보하며 대화하는 협력적 태도를 보인다. 공무원은 상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융통성 있게 의견을 조정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마)의 ‘관리소장’은 ‘공’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관리소장은 ‘공’의 입장을 헤아리거나 소통하려 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소장은 신뢰에 기반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관리소장은 ‘공’에게 아파트 안전의 원칙과 승강기의 현 상태를 알려주어 승강기 교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교체 비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나아가, 관리소장은 공식적인 협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 분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 특히, ‘공’과 같은 입장을 가진 주민들에게 보상과 혜택을 제안하고 추가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관리소장은 공이 느끼는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566자)

■ 채점 기준

[문제 2]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에 나타난 ‘관리소장’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5점)
 (1) 제시문 (라)에서는 상우와 공무원이 서로 경청하고 양보하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융통성 있게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한다 (5점)
 (2) 이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관리소장이 ‘공’의 항의에 무책임한 태도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서술한다 (10점)
 2) 제시문 (마)의 ‘공’이 느끼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소장’의 역할을 제시문 (바),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5점)
 (1)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를 통합하여, 관리소장이 신뢰에 기반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함을 서술한다. (5점)
 (2) 제시문 (바)의 사례를 적용하여, 관리소장이 승강기 교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교체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한다. (10점)
 (3) 제시문 (사)의 사례를 적용하여, 관리소장이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 분담에 협조하도록 중재해야 하고, 보상과 추후 논의를 통해 공동 분담에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한다. (1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라)를 토대로 (마)의 관리소장의 태도를 비판했는지를 평가 (15점)	(라)에 나타난 상우와 공무원의 태도를 파악한 경우	5점
		(라)를 토대로 (마)의 관리소장을 비판한 경우	5~10점
	②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의 ‘관리소장’에게 필요한 역할을 도출했는지 평가 (25점)	(바)를 토대로 (마)의 관리소장의 역할을 도출한 경우	10점
		(사)를 토대로 (마)의 관리소장의 역할을 도출한 경우	10~20점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의 관리소장을 도출한 경우	20~25점

문제 3

※ 제시문은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3] 제시문 (아)의 ‘빅이슈코리아’와 (자)의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의 공통점과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자)의 아이들이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문 (차)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 예시 답안

(아)의 빅이슈코리아와 (자)의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동기를 부여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때 (아)는 판매와 저축 등 경제 활동을 실천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주거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자활을 돕는 반면, (자)는 사진 찍는 방법을 교육하여 이를 통한 성취를 경험하고 자기 발견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지원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의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진취적 태도와 찍은 사진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이더라도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는 긍정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349자)

■ 채점 기준

[문제 3] 20점 만점 (배점 2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 1) 제시문 (아)에 나타난 빅이슈코리아와 제시문 (자)에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의 공통점과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4점)
(1) 빅이슈코리아와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동기를 부여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점에 있다는 제시문 (아)와 제시문 (자)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공통점으로 기술한 경우 (7점)
(2) 빅이슈코리아는 경제 활동을 실천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주거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지원방식이라는 제시문 (아)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슈팅 백 프로젝트는 교육을 통한 성취 경험과 자기 발견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지원방식이라는 제시문 (자)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둘의 차이점을 기술한 경우 (7점)
2) 제시문 (자)의 아이들이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문 (차)를 활용하여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6점)
(1) 사진을 창의적으로 찍을 때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지녀야 함이 요약 정리된 경우 (2점)
(2) 찍은 사진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이더라도 이를 배움과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는 긍정적 태도를 지녀야 함이 요약 정리된 경우 (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의 빅이슈코리아와 (자)의 슈팅 백 프로젝트의 목적의 공통점과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 (14점)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목적의 공통점과 경제적 지원과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지원방식을 차이점으로 제시	1~3점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목적의 공통점과 실천 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지원과 교육에 따른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제시	4~7점
		취약계층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목적의 공통점과 실천 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지원과 교육에 따른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방식의 차이점을 제시	11~14점
	② (자)의 아이들이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차)를 활용하여 명확하게 서술 (6점)	사진을 창의적으로 찍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내용 요약 정리	1~3점
		사진을 창의적으로 찍을 때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진취적 태도와 찍은 사진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이더라도 이를 배움과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는 긍정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내용 요약 정리	4~6점

2024학년도 인문사회계열 (2교시)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나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도리*·들보·서까래·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나와 달리,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 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이론과 실천…….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思考)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회의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살아 있는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넓은 길, 넓은 바다를 만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춧돌에서부터 집을 그리는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도리: 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

[나]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다. 이는 공재 윤두서(1668~1715)의 자화상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표현해 준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 그림을 찍은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책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이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쳐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

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푸성귀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열 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 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끝 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늑하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 찝막한 이야기는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도 부를 수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려 가곤 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다.

[라]

부탄의 마을 치몽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된 곳이다. 마을이 생긴 이래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처음이다. 치몽은 한눈에 봐도 가난한 마을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답게 변변한 세간도 없다. 사람들 옷차림도 남루하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놀랄 만큼 밝다. 순해 보이고 잘 웃는다. 몸가짐은 부드러우면서 당당하다. 무엇보다 매 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여행자들을 접대한다. 동네를 어슬렁거리기가 무서울 정도다. 활쏘기를 구경하려고 걸음을 멈추면 집으로 뛰어 들어가 돛자리를 꺼내 오고, 집 앞을 지나다 인사라도 하면 바로 방창과 아라* 세례를 받아야 한다. 논두렁길을 걷다 보면 어린 소년이 뛰어와 옷 속에 품은 달걀을 수줍게 내민다. 이 동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으며 빈한한* 살림마저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듯했다.

치몽에서는 늘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만 한다.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공동 수도가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도 움직여야만 한다. 빨래는 당연히 손으로 해야 하고, 쌀도 키로 골라야 하며, 곡물은 맷돌을 돌려 갈아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열심히 몸을 써야만 얻을 수 있다. 이 나라에서 삶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카메라로 찍는 삶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삶이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다.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고 별걱정이 없어 보인다. 그냥 평생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긋함이 번져 온다.

실제로 우리는 일을 더 빨리 해 주거나 대신 해 주는 것들을 가졌는데도 늘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듯하다. 하지만 기계가 아닌 몸을 써서 수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이 “바빠 죽겠다.”거나,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과학 기술이 우리를 더욱 편하게 해 준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속

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만을 바라며 늘 ‘현재’를 저당 잡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믿어 왔다.

부탄에 머무른 스무 날 내내 부탄은 내게 묻는 것 같았다. 당신은 행복하냐고. 당신에게 행복은 어떤 의미냐고. 서른네에 여행자의 삶으로 들어선 이후, 내 삶이 행복하다고, 감사할 일로 가득하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부탄은 더 깊이 캐묻는다. 여전히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충분하다고 멈출 수 있는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도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방창, 아라: 부탄의 전통주.

*빈한한(貧寒): 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한.

[마]

근교로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여유가 없어.”라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머리를 굴려 보면 나들이를 갈 수도 있을 듯했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나니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달력을 넘겨 보고 휴대전화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 놀러 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득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의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닌란 생각이 들었다.

여유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두 가지 여유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된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볼 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는 여유 말이다.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초밥 대신 김밥을 사 먹고 커피숍이 아닌 자판기 앞에 가야 할 때도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기다려 왔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로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다 싫어진다.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다. 비단 물질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유 있음은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상대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듣는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주위를 살피고 걷는지 등 대부분 태도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음식을 내온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에서도 여유는 묻어난다.

[바]

[앞부분 줄거리] 파리 중심가에서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는 꾸빼 씨. 그는 마음의 병에 걸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해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으며,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는 진료실 문을 닫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행 초반에 만났던 노승과 재회한다. 꾸빼 씨는 자신이 찾은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노트에 적어 노승에게 전해주며 이야기를 나눈다.

책상에 앉아 노승은 꾸빼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꾸빼는 기뻐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노승이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아니면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노승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멎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꾸빼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윽고 노승이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꾸빼는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노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꾸삐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꾸삐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 온 하나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이었다. 이러한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꾸삐는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바로 그 근원적인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

[사]

영국 시인 테니슨과 일본 시인 바쇼의 시를 읽어 보자.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즉 산책 중에 꽃을 본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였다. 먼저 테니슨의 시를 보자.

갈라진 돌담에 핀 한 송이 꽃이여.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네.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확히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바쇼의 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 있네.
울타리 밑에!

테니슨의 반응은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는 꽃을 ‘뿌리째’ 뽑아낸다. 그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어 버린다. 그러나 바쇼의 반응은 아주 다르다. 그는 꽃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꽃에 손을 대지조차 않는다. 다만 가만히 살펴볼 뿐이다. 단순히 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된다. 꽃을 그대로 살려 두면서 자신을 꽃과 일치시킨다.

꽃에 대한 테니슨의 생각은 소유 양식에 해당한다. 뿌리째 뽑아 든 꽃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지식의 소유를 암시한다. 반면에 꽃에 대한 바쇼의 생각은 존재 양식에 해당한다. 존재 양식이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 또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살아 있는 것을 즐겨워하고 자기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을 뜻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 지향적이므로 존재가 소유에 가려지기 쉽다.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들은 돈, 명성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지위, 친구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아]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들어서 있던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귀음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퍼져 나가는 중심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넨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을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매장을 둘러볼 수 있다. 편의점이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열어 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자가 즉석 식품점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 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은 편의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사회학자는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고, 그 편안한 의례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즉석 식품점에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즉석 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

[자]

가짜 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상의 뜬소문까지,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 영역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2017년 한국 언론 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바쁜 현대인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된다. 그 결과 혐오나 선동과 같은 자극적인 요소를 담아 눈에 띄게 만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된다.

누리 소통망(SNS)의 정보 처리 규칙도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이때 정보 처리 규칙은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정보를 선별하여 보여 주는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 뉴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 관념 역시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필터 버블은 인터넷 검색 업체(포털)와 누리 소통망 등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엘리 프레이저는 자신의 누리 소통망 계정에 보수 성향의 글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정보 통신 업체 측이 자신의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정보 처리 규칙으로 보수 성향의 정보들을 걸러 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개인 맞춤형 정보 처리 규칙이 정치·사회 분야의 뉴스와 만나게 되면 특정 정보 편식 현상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

[차]

뉴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즉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생산적 소비자(prosumer)의 시대, 또는 1인 미디어 시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를 생산하고 동시에 유통, 소비하는 주체인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매체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뉴 미디어를 통한 개인 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사적 권리로 인격적 이익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람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은 둘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뉴 미디어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뉴 미디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 및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매체 이해력(media literacy)을 갖추어야 한다. 매체 이해력이란 매체가 형성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어 내면서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뉴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뉴 미디어상

에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이 서로 비교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화자가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 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가)~(라)에는 비교를 통해 차이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의 나는 목수가 집을 짓는 순서대로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지만 자신은 지붕부터 집을 그리는 차이를 발견했다. 이를 통해 이론보다 현장 경험과 실천적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나)의 화자는 현재의 자화상과 옛사진 속 그림을 비교해 상반신 윤곽선의 유무, 인상과 분위기의 상이함을 찾았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와 성찰의 과정이 남은 미완성작도 예술성이 높을 수 있음을 알았다. (다)의 나는 자신에 비해 할아버지가 두 배나 힘들게 일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각자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소소하게라도 생명을 돌보는 일에 진정성을 가져야 함을 깨달았다. (라)의 화자는 부탄 사람들은 가난해도 욕심없고 여유롭게 살지만 우리는 많이 가져도 더 갖고자 조급하게 산다는 차이를 발견했다. 그 결과 행복의 가치를 재성찰하면서 나눔과 만족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인식에 도달했다. 따라서 화자는 그리는 순서, 그림의 상태, 수고로움, 삶의 방식에서 차이점을 찾고 이를 통해 실천, 예술성, 생명,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570자)

■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화자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32점)

(가) 차이점: 목수가 집을 짓는 순서대로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는 반면 자신은 지붕부터 집을 그린다는 차이를 발견함 (4점)

깨달은 것: 이론보다 현장의 경험과 실천적 삶이 중요함을 깨달음 (4점)

(나) 차이점: 현재의 자화상과 옛 사진 속 그림을 비교하여 상반신 윤곽선의 유무 여부, 인상과 분위기의 상이함을 찾음 (4점)

깨달은 것: 작가의 의도와 성찰의 과정이 남은 미완성작도 예술성이 높을 수 있음을 깨달음 (4점)

(다) 차이점: 나는 자신에 비해 할아버지가 두 배나 힘들게 일한다는 차이점을 발견함 (4점)

깨달은 것: 각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거창한 목적이 아니어도 생명을 돌보는 일에 진정성을 가져야 함을 깨달음 (4점)

(라) 차이점: 화자는 부탄 사람들은 가난해도 욕심 없고 여유롭게 살지만 우리는 가진 게 많아도 더 갖고자 조급하게 산다는 차이를 발견함 (4점)

깨달은 것: 행복의 가치를 재성찰하면서 나눔과 만족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인식에 도달함 (4점)

-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화자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차이점’과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1)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2)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가)~(라)에는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 나타난다.

결론: 따라서 화자는 그리는 순서, 그림의 상태, 수고로움, 삶의 방식에서 차이점을 찾고 이를 통해 실천, 예술성, 생명,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차이점과 깨달은 것을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 (3점) 및 결론 제시 (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제시문 (마)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제시문 (라)에 언급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예시 답안

(마)에서 언급된 세 가지 여유의 맥락에서 (라)의 부탄 사람들이 처한 상황으로 보면, 이들은 가난한 삶을 살기에 물질적 여유가 없고, 몸을 바빠 움직여야만 모든 일상이 영위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의 상태로서의 여유를 충분히 지니고 있기에 가난해도 삶을 즐기고, 낮은 이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여유로운 삶을 산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여유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적, 시간적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바)에서는 잠시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활용하여 (라)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의 노승처럼 지금의 순간 자체에 집중해 근원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가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에서 언급한 존재 양식의 삶도 필요하다. (라)의 ‘우리’는 소유의 방식에 기반하기에 가진 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주체적 삶을 여유롭게 향유하는 존재 양식의 삶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68자)

■ 채점 기준

[문제 2] 40점 만점 (배점 4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 1)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제시문 (마)를 토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 (1)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태도 혹은 삶에서 나타나는 여유를 설명한다. (5점)
 - (2) 제시문 (마)에서 나타난 물질적 여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의 개념을 토대로 (라)의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각각 평가한다. (10점)
 - (3) 제시문 (라)의 부탄 사람들은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 그럼에도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 친절하며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한다. (5점)
- 2) 제시문 (라)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문 (바),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 (1) 제시문 (바)에서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은 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기술한다. (5점)
 - (2) 제시문 (사)에서는 물질을 소유하는 삶이 아닌 존재 자체를 추구해야 함을 기술한다. (5점)
 - (3) 제시문 (라)의 ‘우리’에게는 (바)의 노승처럼 지금의 순간 자체에 집중해 근원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기술한다. 또한 (사)에 나타난 것처럼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양식의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기술한다. (1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를 근거로 (라)를 평가했는지를 평가 (20점)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파악한 경우	5점
		(라)에 나타난 부탄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마)에 나타난 여유의 개념 3가지로 각각 판단한 경우	5~10점
		(라)의 부탄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기에 다른 두 가지 여유(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5점
	② (바), (사)를 통해 (라)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도출 (20점)	(바)에서는 잠시 멈추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경우	5점
		(사)에서는 물질을 소유하는 삶이 아닌 존재 자체를 추구해야 함을 기술한 경우	5점
		(라)의 ‘우리’에게 (바)의 노승처럼 지금의 순간 자체에 집중해 근원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기술하고 (사)에 나타난 것처럼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양식의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기술한 경우	5~10점

문제 3

※ 제시문은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3] 제시문 (아)의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제시문 (자)의 누리 소통망(SNS)의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기술하고, 제시문 (자)의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문 (차)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 예시 답안

(아)에서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하고, 규격화된 상호작용 지침을 토대로 응대하여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기보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자)에서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개인 간 취향 차에 초점을 맞춰 뉴스를 이용자 맞춤형으로 선별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한편 (차)에 따르면 (자)의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해 인격권을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구성원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매체 이해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350자)

■ 채점 기준

[문제 3] 20점 만점 (배점 20)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 1) 제시문 (아)에 나타난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제시문 (자)에 나타난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4점)
(1)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는 의도적 무관심을 통해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규격화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제시문 (아)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기술한 경우 (7점)
(2)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개개인의 취향 차를 고려하는 이용자 맞춤형 규칙을 적용해 뉴스를 선별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제시문 (자)의 논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기술한 경우 (7점)
2) 제시문 (자)의 가짜 뉴스에 우리 사회가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시문 (차)에서 찾아 명확하게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6점)
(1)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해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요약 정리된 경우 (2점)
(2)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요약 정리된 경우 (2점)
(3)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체 이해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요약 정리된 경우 (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의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와 (자)의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대하는 전략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 (14점)	편의점 서비스 공급자가 익명성의 보장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전략을 사용한다는 제시문 (아)의 논지 제시	4-7점
		누리 소통망 뉴스 공급자가 이용자 맞춤형 규칙을 통해 뉴스의 선별 제공 전략을 사용한다는 (자)의 논지를 제시	11-14점
	② (자)의 가짜 뉴스에 우리 사회가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차)에서 찾아 명확하게 서술 (6점)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해 인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요약 정리	1-2점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 요약 정리	3-4점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체 이해력이 신장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요약 정리	5-6점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